

고구려 고분벽화의 고(鼓) 문양연구

신 명 속

(한국 대진대학교 무용예술학부)

목 록

- I. 서론
- II. 본론
 - 1. 고구려 문헌 기록의 담고(擔鼓)와 고
 - 2. 중국의 동고와 문양
 - (1) 단면 동고의 문양
 - (2) 양면 동고의 문양
- III. 결론

I. 서론

고구려사는 이미 고대 한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문헌 기록의 제한적 자료 때문에 연구의 한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에서 발견되는 고분들이 고구려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고분벽화 속에 그려진 고구려인들의 생활, 복식, 문화의 사실적인 풍속도는 당시 고구려의 생활을 이해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어 각 분야 학계의 주목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북한, 한국의 정치적인 대립에서 공개된 보도 내용들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특히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구려의 연구는 극히 저조했었다.

1985년 북한의 조선화보사는 일본 인쇄회사를 통해서 『북한 고고 학술 업서』를 발간했는데 그 중 제 8권의 「고구려 고분 벽화」는 현지 지역 탐방을 통해 찍은 구체적인 채색 사진을 담은 자료였다. 이 도록은 북한에서 발굴한 15개의 고구려 고분에 관한 설명과 사진들이 들어 있는데 생동감 있는 사진 자료들은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북한 내 발견한 15개의 고분들 대부분이 인물 풍속도무덤, 인물풍속 및 사신도 무덤, 사신도 무덤 등에 대한 내용¹으로 분류하였고 시대적으로 4세기에서 6세기 초의 고분² 이라고 설명하였다.

¹ 주영헌, 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 조선화보사, 1986년, 쪽 5

² 안악 제 1호 무덤(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4세기말), 안악 제 2호 무덤(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5세기말- 6세기초), 안악 제 3호 무덤(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 4세기 중엽), 약수리 벽화무덤(평남 대안시 약수리 4세기말-5세기초), 덕흥리 벽화무덤(평안남도 대안시 덕흥리 5세기초), 동명왕릉(평양시 려포구역 무진리 4세기말- 5세기초) 통강큰무덤(평남

1971년도에 발견된 평양남도 수산리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인물풍속도가 그려져 있다. 훼손이 심해서 완전한 장면을 볼 수 없지만 교예장면, 독특한 부녀 복식, 얼굴 화장은 기존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없는 귀하고 새로운 장면들 이었다. 고취악대 장면은 고(鼓)와 각(角) 악기가 보인다. 고와 각은 안악 고분과 덕흥리 고분의 고취악대 행렬에서도 등장하는 악기들로 당시 행렬의식 때 보편적으로 사용된 악기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수산리의 고는 다른 지역의 고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장면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³ 두 사람이 앞뒤에 서서 커다란 둥근 고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고의 지름이 아마도 1미터 이상의 크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 밑으로 양 다리가 보이는데 이것은 또 한 사람(고수)이 고 뒤에서 북을 치고 있는 장면으로 유추할 수 있고 양면을 타고할 수 있는 고라고 생각된다. 고의 설치 구조를 보면 둥근 고의 3면을 뚫어 튼튼하게 보이는 두개의 다리와 반월형 같은 장대에 고정시켰다. 고면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고 가운데의 태양문양과 또 하나는 고의 테두리 부분을 6부분으로 나누어 같은 문양의 구름문양(운문)을 그렸다. 이 문양을 강조하기 위해 고수를 뒤에 묘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이 문양들은 중국 고대 타악기 유물에 이와 유사한 문양이 발견되어 한층 더 흥미로움을 가져다 준다. 본 논문에서는 고구려 고에 나타난 문양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 문양을 살펴 봄으로서 고구려의 고와 연관성을 연구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고구려 문헌 기록의 담고(擔鼓) 와 고

고구려 고에 대한 자료는 중국 문헌에 기록된 고의 명칭과 현재 고구려 고분 벽화에 기록된 그림을 근거로 당시 고구려의 타악기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고구려 고(鼓)에 대해 중국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高麗.....鼓之屬 『북사(北史)』 『수서(隨書)』

高麗歌曲有芝栖.....腰鼓,齊鼓 擔鼓 銅鈸 貝等十九種爲一部 『수서(隨書)』 권15

高麗樂工人..... 腰鼓, 齋鼓, 檐鼓(擔鼓)... 『구당서(舊唐書)』

高麗伎...腰鼓, 齊鼓 擔鼓 龜頭鼓 鐵板... 『신당서(新唐書)』 권21

남포시 룡강군, 수산리벽화(평남 대안시 수산리 5세기), 대안리 제 1호무덤(평남 룡강군 대안로동지구 5세기말), 덕화리 제 1호 무덤(평남 대동군 덕화리 5세기말-6세기 초) 덕화리 20 호 고분(평남 대동군 덕화리, 5세기말, 6세기초) 진파리 제 1호 무덤(평양시 력포무역 무진리 6세기), 진파리 제 4호 무덤(평양시 만포구역 무진리 5세기말-6세기초), 호남리 사신무덤(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5세기말 6세기 초), 쌍기동 무덤(평남 남포시 룡강군 룡강읍 5세기

³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6년, 사진 No109

문헌에 알려진 고구려의 고의 종류는 요고, 제고, 담고, 구두고 등 4가지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고 이중 요고, 제고, 담고는 비단 고구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악기 편성에도 같은 명칭의 악기 이름이 보인다. 중국 구부기의 서량기(西凉伎)⁴와 십부기의 서량기, 구자기(龜茲伎)⁵ 악기 목록에 보이는 요고, 제고, 담고는 그들 나라 음악을 연주하는데 중요한 타악기로서 활용되었다. 이 악기들이 서로가 어떤 특징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서량기와 구자기는 모두 중국 서북지역 혹은 북방 실크로드와 관련이 되는 지역이므로 요고, 제고 담고 등은 당시 중국 서북, 동북지역의 민족들이 문화 교류를 통해 함께 공유했던 악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를 증명하기에는 자료 한계로 인해 단정 내리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1949년 황해남도 안악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안악고분 제 3호분에는 고취악대 행렬벽화가 그려져 있고 고구려 악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대한 유물이 긴 잠에서 깨어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발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림2)

이 악대의 악기는 대개 취타악기로서 《蕭》《角》《大角》《二重鼓》《擔鼓》《擔鐘》《鐸形打樂器》 등이 보이는데, 《擔鼓》, 《擔鐘》을 제외하고는 대개 기수들이 취타하고 있으며, 복식은 모두 흑색과 바지저고리를 입고 있다.

(발굴보고 22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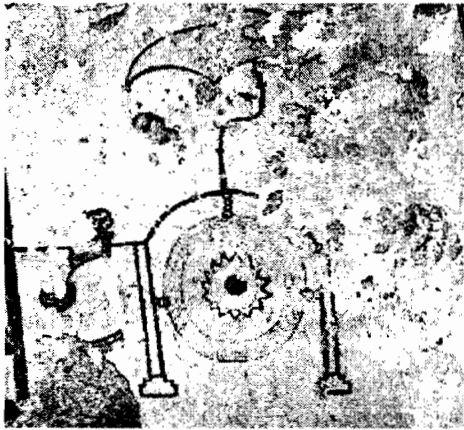


그림1 수산리 벽화의 고



그림2 안악 고분 고취악대

보고서에는 안악 고분 벽화의 고취악대 장면에 등장하는 악기를 모두 7종류로 분류했고 그 중 고와 관련된 악기는 <이중고><담고> 두 종류이며 ‘담고’는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 문헌 고구려 악기 명칭과 동일하다. 그러나 악기 명칭 사용에 대해 몇 가지 의문사항을 갖게 한다. 첫째, 담고의 명칭사용이 중국 문헌 고구려 담고와 동일한 악기로 인정해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둘째, 담고(擔鼓), 담중(擔鐘)의 ‘擔’은 메다, 짚어지다 등의 의미 해석으로 중국 문헌기록과 관계없이 단지 ‘메달인 북’, ‘메달인 종’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이해구씨는 담고 명칭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⁴ 西凉者起符氏之末…腰鼓,齊鼓,擔鼓,銅鈸貝等 (隨書)권15

⁵ 西凉伎有編鐘 腰鼓 齊鼓 檐鼓 新唐書21

龜茲樂…腰鼓 齊鼓 檐鼓 舊唐書권9

그 북의 직경이 옆에선 고수의 눈에서 배까지 이르고, 그 통 북은 중간이 반월형 같이 위로 휘어진 긴 대에 매달렸고, 그 긴대를 전후 2인이 어깨에 메고, 고수 1인이 양수에 다 북채를 쥐고 그것을 높이 들고 있다. 발굴보고에 쓰인 담고라는 명칭은 수(隋)의 궁중에서 주(奏)하는 구부기중의 하나인 고려기에 나온다. 담고가 고취행렬에 그대로 담고로 불렸는지는 의문이다.⁷

뿐만 아니라 담고를 『隋書』와 『高麗史』의 예를 들면서 강고(강?鼓)와 같은 의미라고 했다.⁸ 송방송씨는 수산리 고분 벽화에 그려진 고 역시 담고라고 지칭⁹ 을 했지만 어떠한 해석도 내리지 않았다.

중국 문헌에 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과 실물이 그려져 있다.

擔鼓，如小瓮，先冒以革而漆之 《舊唐書·音樂志》

담고, 작은 웅기와 같다. 겉에 가죽을 씌우고 칠을 한다.

擔鼓西?高麗之器也，狀如甕而小 先冒以革而漆之 是其制也 《陳暘 樂書》

담고는 서량 고려의 악기며 모양이 웅기처럼 생겼고 작다. 몸통의 양쪽에 끈이 달려 있어서 메도록 되어 있고 겉을 가죽으로 씌우고 옷칠을 하였다.¹⁰

담고는 항아리처럼 둥글고 그리고 가죽 편을 쓰고 칠을 칠한다고 했고 진양 『악서』에 묘사된 담고¹¹도 둥근 형상을 가졌다. 문헌 기록에 보인 담고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일명 담고 라는 악기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담고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산리 벽화의 고는 도대체 어떤 악기일까. 그림 1에 보이는 것처럼 고면에 문양을 그려놓고 고틀의 양 다리를 튼튼하게 세운 채 두 남자가 무겁게 들고 가는 저 악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점을 중국의 악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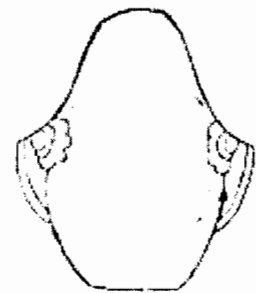


그림3 진양<악서>의 담고

2. 중국의 동고와 문양

중국의 고(鼓)의 역사는 이미 신석기 유적지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유물 지역인 감숙, 청해, 하남, 산둥 지역의 신석기 유적지¹²에서 도고(陶鼓), 목고(木鼓)가 발견되었지만 오랜 세월동안 땅속에서 묻혀 있어서 완전한 원형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중국 갑골문에 고(鼓) 문자가 있다.

⁶ 안악 제 3호분 발굴보고 1958년(이혜구, 한국음악사설,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년 쪽 12에서 재인용)

⁷ 이혜구, 한국음악사설,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년 쪽 12-13

⁸ 상동

⁹ 송방송, 한국고대음악사연구(일지사, 1985년)의 사진 No20에 담고라고 하였음

¹⁰ 상동 쪽 179

¹¹ 장사훈, 한국음악사, 세광출판사, 1986년 쪽 50

¹² 王子初, 중국음악고고학, 福建教育出版社, 2003, 쪽 81



그림4



그림5



그림6



그림7

그림 4는 상대(商代) 갑골문이고 그림 5는 주대(周代) 금문(金文)에 기록된 문자이다.¹³ 두 문자를 각각 살펴보면 두개의 그림이 모여 하나의 문자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를 그렸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이 도구를 들고 있다. 타고를 하려는 자세이다. 그림6, 7은 갑골문에 새겨진 고의 형상을 따로 옮겨놓은 것인데 고면에 어떤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알 수가 없다. 고의 형상을 보면 본체 외에 상부의 장식과 하부의 설치대가 각각 있어 고수가 타고하기에 적당한 위치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문자의 형상과 거의 유사한 고가 중국 호북성에서 출토되었다. (그림 8) 송양동고(崇陽銅鼓)라고 불리는 이 고는 양면을 칠 수 있는 동고로 도구를 사용해서 소리를 낸다.



그림8 상대 송양동고

청동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제작 시기는 상대말기로 추정된다. 문자 형상과 거의 같은 송양동고 면에는 문양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후 발견 되는 유물에는 점차적으로 문양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1) 단면 동고의 문양

청동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단면 동고는 중국 남방 일대와 동남아 지역, 동인도 일부 지역에 널리 분포 사용하고 있다. 단면 동고라는 것은 고면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하며 양면 동고와 달리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그림9) 동고의 비어있는 쪽을 바닥에 놓으면 자연히 면이 있는 쪽이 위로 향한다. 도구를 사용해서 고면을 치는데 바닥이 평탄하지 못하거나 위치가 불안할 때는 동고 옆에 달려있는 고리(혹은 손잡이라고도 함)에 나무가지 또는 끈을 넣어 공중에 고정시킨다.

단면 동고의 제작은 춘추전국시대 말에서 서한(西漢) 중기¹⁴로 추측하고 있고 초기 형태의 대표적인 동고는 윈난성 추송 완자바(云南省楚雄万家?)과 윈난성 진닝 스자이산(云南省晋寧石寨山)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의 대부분은 무덤 속에 함께 수장되거나 혹은 땅속에서 발굴되는데 동고면에는 태양문(太陽紋), 운뢰문(云雷紋), 동물문(動物紋) 석문(席紋), 전문(錢紋), 조문(鳥紋), 화문(花紋) 기타 등의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이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태양문(太陽紋)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환경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양들이

¹³ 허진용저 홍희역, 중국고대사회, 동문선, 1993년. 쪽 425

새겨져 있다. (그림10,11,12,13)¹⁵

중국 남방지역에서 사용된 동고는 각 지역의 제사, 상장, 집회, 신호 및 춤을 출 적에 동고를 두들기는 풍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배계층의 지위와 재산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남방민족인 와족(?族)은 소 2-3마리와 혹은 노예 1명을 동고 1개와 물물교환을 했으며 동고를 많이 소유 할수록 지위와 권력이 높아지고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다.¹⁶

뿐만 아니라 동고는 중앙집권의 통치자에게 공물로 받쳤고 또한 국가 유공자들에게 하사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¹⁷

고면에 그려진 태양 문양은 윈난성 지역 외에 광시성(廣西省) 지역에서도 보인다. 광시성 주어강(左江)유역의 높은 암벽(화산 암화라고도 부름)에 군중들이 성대한 집회에 참여하여 춤추는 장면이 수없이 그려져 있다. (그림 14)¹⁸ 그림을 살펴보면 군중들이 양손을 올리고 양다리를 기마자세를 한 채 어느 한곳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옆에 둥근 물체가 있다.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안에 태양문양과 거의 유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둥근 물체는 바로 동고를 묘사한 것으로 군중들이 타고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암화에다 그려놓은 것이다. 학자들은 이 암화를 보고 실제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춤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의식을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과 그 반대로 무당이 주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은 군중들을 동원시켜 춤추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므로 주술적 효과와 효율성을 위해 의식의 일부분을 가상적인 그림으로 제를 지냈다는 주장 등이 있다.

단면 동고에 보이는 태양문양은 양면 동고에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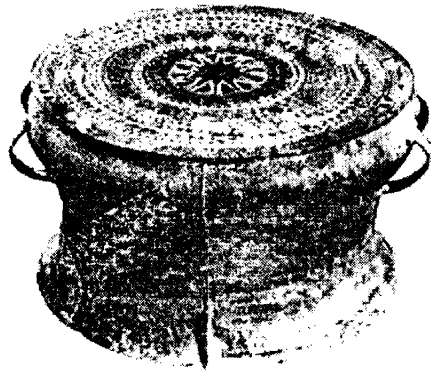


그림9 마江刑동고



그림10 雲南省江川縣이가산출토

¹⁴ 李昆聲,張增祺 “云南青銅文化之探索”, 「云南青銅文化論集」, 雲南성박물관, 1991, 쪽 9,

¹⁵ 중국 고대동고연구회편, 중국고대동고, 문물출판사, 1998년, 그림 10 쪽 40, 그림11 쪽34, 그림12 쪽36, 그림 13 쪽 23

¹⁶ 中國古代銅鼓研究會編, 中國古代銅鼓, 文物出版社, 1988, 쪽 8

¹⁷ 『太平御覽·志林』 “建武二十四年(公元 48年),南郡男子獻銅鼓.”
『舊唐書 東謝蠻傳』 “有功勞者,以牛馬,銅鼓賞之”

¹⁸ 廣西壯族自治區民族研究所編, 廣西左江流域岩壁畫考察與研究, 廣西民族出版社, 1987년, 쪽 15



그림11 만가패동고면



그림12석채산동고면



그림13만가패동고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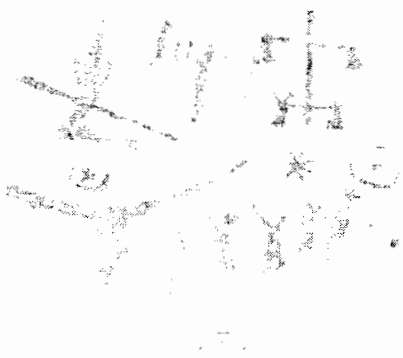


그림14廣西 寧明縣 高山 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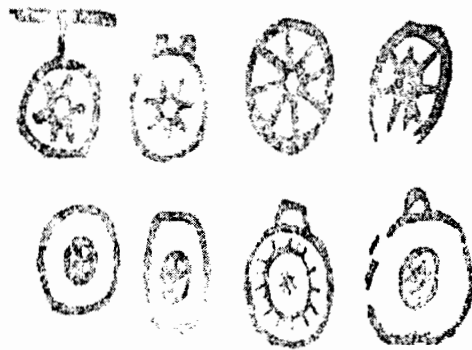


그림15 廣西 左江 암화에 그려진 동고들 모습들

2) 양면 동고(兩面 銅鼓) 의 문양

상나라의 속국이었던 주(周)는 주변 부족들과 연합하여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주(周)나라를 세웠고 주변 민족들의 무악을 집성하여 예약제도를 제정하였다. 주는 봉건 제도를 실행했고 예약으로 천지,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 천명(天命)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봉건시대가 부패하자 백성들의 반란으로 결국 주왕조를 멸망시켰고 예약제도도 붕괴되자 예인들도 흩어져 민간가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춘추전국시대와 진나라를 거쳐 한무제는 중국을 통일했고 대외적으로 영토 확대를 하여 북방의 고비사막 지역과 서방의 실크로드 개척, 동방의 한반도 한사군 설치와 남방의 안남까지 진출하여 봉건 중앙집권국가를 세웠다.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가무 활동이 다시 활발하여 '백희(百戲)'가 성행했다. 한대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화상전, 화상석, 도용에는 당시 한대의 생생하고 동적인 가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물의 타악기부분에 태양 문양이 나타난다.

이난(沂南)에서 출토된 유물 탁본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6) 상단부분에는 새와 화려한 장식을 달았으며 장식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 야외에 설치한 것 같다. 본체(고)를 보면 고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길이와 지름 또한 굵어 보인다. 한 남자가 양손에 도구를 들 채 양팔을 힘껏 위로 올리고 있고 하체는 무릎을 꿇은 채 타고자세를 하고 있다. 하단은 4개의 받침대가 있다. 고면에는 태양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또 다른 한대 유물의 탁본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정주(鄭州)에서 출토되었는데 한 여자가 손에 도구를 들고 북을 치고 있으며 집의 지붕과 기둥이 보이는 것을 보아 야외에서 타고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본다. 이 고면에도 태양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그림 17)

두개의 탁본에서 공동적으로 보이는 것은 첫째, 한대의 유물이라는 점이고 둘째, 타악기 고면에 태양 문양이 그려져 있고 셋째, 문양이 남방지역의 단면 동고에서 나타나는 태양문과 비슷하며 넷째,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 고에 그려진 문양과 거의 일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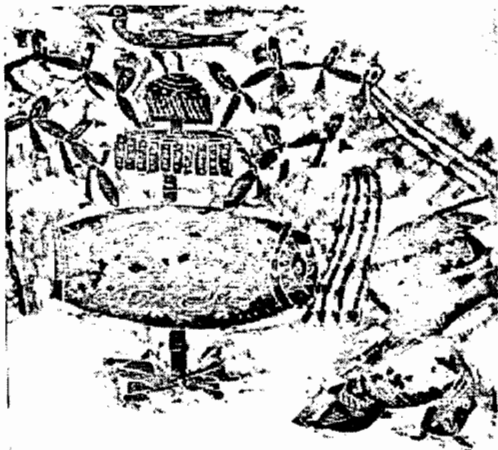


그림16 기남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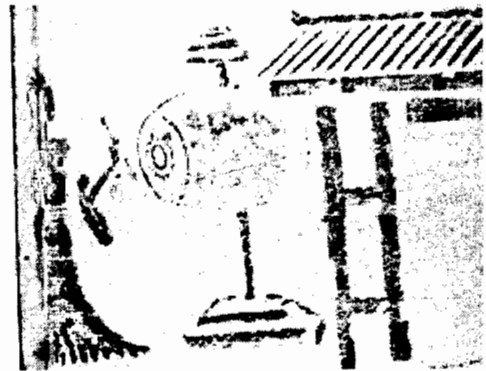


그림17 정주출토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고의 문양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증명되었지만 또 하나의 의문은 이 양면동고의 악기가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악기였는지 증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림 상에서 수산리 양면의 고 길이는 그다지 길어 보이지 않지만 한대 양면 고의 길이는 길다. 그리고 외형상 두개 지역의 동고가 같은 모양의 타악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수산리 고에 보이는 양면동고는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타악기이었을까?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양면 동고가 출토되어 관심을 모우고 있다

본인은 중국 어느 소장가가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 양면 동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동고는 청동으로 만들었고 크기는 직경 37cm, 두께가 8cm이며 3 개의 고리가 달려 있고 동고의 둘레 밑 부분에는 13cm 길이의 큰 구멍이 뚫어 있고 속은 비어 있다. 고면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안에서부터 밖으로 5개의 원이 그려져 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원 사이에는 연화문이 그려져 있고 다섯 번째 원 사이에는 명문과 운문이 있다. 명문은 8개 문자 '大定'

年銘金銅鼓'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18) 중국 역사에서 大定연호를 사용한 국가는 3번 있었는데 양(梁)나라 555년과 북주(北周) 581년에 각각 대정이라는 연호를 썼고 그리고 금나라 세종(世宗)때(1161년-1189년) 29년 동안 연호를 사용했다. 유물 보존 상태와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아 大定은 금나라 세종의 연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정 3년은 기원 1163년이다. 양면동고는 중국에서 아주 드물게 출토되는 유물이지만 최근 중국 서남지역 야롱강 유역에서 또 하나의 양면 동고가 발견되었다. 이 동고에는 '太和貳年〇〇寺銘金' 라는 명문과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그림19) 동고에 그려진 문양과 형상이 大定 동고와 거의 유사하다. 태화 2년은 기원 828년으로 당시 야롱강 유역은 토번(티베트 민족)이 지배했던 지역이다. 양면 동고는 불교에서 사용된 악기이며 토번은 불교를 숭배했던 민족으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양면동고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태화 2년은 大定 3년보다 334년 앞섰지만 2개의 동고를 비교해보면 제작 기술과 모양에 큰 차이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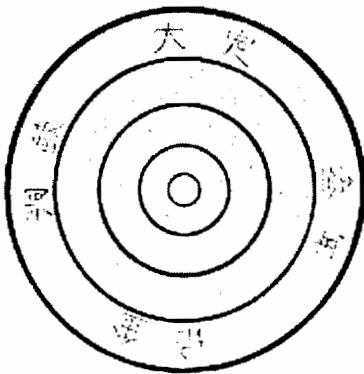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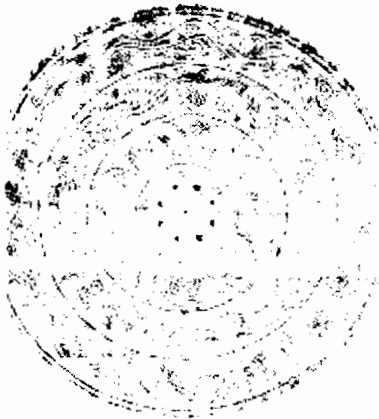
그림18 대정3년 양면동고

북방 흑룡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은 남쪽을 침범하여 여진부락을 통일하였고 마침내 1115년에 금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여진족은 문화, 경제, 정치 방면에 낙후되어 한족의 문자와 문화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배계층들은 불교를 신봉 하게 되었다.

『金史』卷三에 '1123년 10월 상경(지금의 흑룡강 지역)에 있는 경원사에서 승려들이 사리를 봉헌했다.¹⁹ 라는 기록이 있다. 金史 卷八十에는 희종때

그의 태자가 병들어 죽자 저경사에 그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했다.²⁰는 기록을 보아 불교가 성대 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금나라 일반 백성들은 珊蠻教

(샤만교)를 믿었지만 지배 계층들은 불교를 숭배하여 불교에 필요한 법기를 제작하고 명문과 연화문을 새겨놓은 것도 모두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²¹



수산리 고분 벽화의 고는 분명 양면 고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고의 재료가 청동인지 아니면 나무,흙 등 자연 소재로 만든 것인지 사실 그림상에서 구별할 수는 없지만 고 틀에 달린 두 개의 다리 받침대 양식에서도 가름을 할 수 있다. 고취악대들은 오랜 시간동안 서거나 혹은 행진하면서 연주해야 하는 역할이다. 기존에 발견된 고구려 고취 악대 행렬의 고들은 장대를 이용해서 매달았다는 것은 그 악기가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수산리 고의 받침대까지 달려 있는 전용적인 고 틀은 악기가

¹⁹ 天會元年十月上京慶元寺僧獻佛骨'

²⁰ '命工朔其像于儲慶寺'

²¹ 宋兆麟선생은 본인의 스승으로 <大定三年的兩面銅鼓> 미 발표 논고를 자료로 제공해 주었다.

결코 가볍지 않으며 또한 악사들의 좋은 소리를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배려라고 본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적에 수산리의 고는 동고임에 틀림이 없고 양면 동고는 당시 유행했던 동고의 또 다른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태화2년 양면동고 중국은 한나라때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더불어 불교 음악도 함께 수용했지만 당시 유물에는 여전히 태양문양의 동고가 기록되어 있고 8세기가 지나 불교용으로 사용된 양면 동고에 연화문이 나타나고 있었다. 고구려의 불교도 4세기경 소수림왕때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5세기경 고취악대의 동고 문양에는 여전히 태양문이 그려져 있다.

III. 결론

고구려 고분 벽화의 고취악대 장면에 그려진 고를 담고라고 부르고 이를 중국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의 담고와 같은 타악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담고에 대한 중국 문헌을 근거로 서로가 연관성을 갖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의 고취악대 중에 보이는 고는 기존의 벽화에 알려진 고구려 고와 다르다. 수산리 고의 특징은 우선 지름이 1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양면을 타고할 수 있으며 고면에 태양문양과 운문이 그려져 있고 또한 악기의 운반과 소리를 위해 두개의 다리를 세운 고 틀이 보였다. 이런 모습을 근거로 중국의 동고 역사를 살펴본 결과 중국 단면 동고와 양면 동고에서 태양문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수산리 고 모습과 거의 유사한 양면동고가 최근에 유물이 발견됨으로서 수산리 고의 실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 문헌에 보이는 고구려 고의 종류들이 서량기와 구자기에서도 같은 악기 명칭을 보여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고구려 악기 실물을 보여주던 고분 벽화의 고취악대에서 이외로 중국 남방지역의 동고 문화권이 한반도에 서도 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1971년에 발굴된 평안남도 수산리 고분은 5세기경 고구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분의 벽화에 보이는 鼓를 학계에서는 담고(擔鼓)라고 부르고 있다. 벽화그림을 살펴보면 양옆 두 사람이 커다란 鼓를 들고 이동하고 있고 또 다른 한사람은 鼓의 뒤에 있어 이 鼓는 양면을 칠 수 있는 악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벽화에서 보이는 鼓의 앞면에는 중심부와 테두리부분에 독특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문양은 고구려 악기에서 처음 보이는 문양이지만 중국 남방 지역의 銅鼓에 나타난 태양 문양과 운문 등이 유사하며 또한 중국 西漢末 경으로 추정되는 鄭州 建鼓舞 畫像? 유물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양을 발견되었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에 그려진 鼓의 문양은 중국의 동고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수산리 鼓는 皮鼓가 아니라 銅鼓이므로 한반도도 동고 문화권에 속했다.

Study of Pattern on the "GO(鼓)" - means drum - in Mural Painting of Ancient tomb of Koguryo

Shin, Myungsook

The ancient tomb, unearthed at Susan-Ri PyeongAn Nam-Do in 1971, is known as a tomb of Koguryo about 5th century. In academic world, they call the "Go", appeared on the mural of this ancient tomb, the "Dam Go(擔鼓)". We can guess that this "Go" is devised to be hit on the both surfaces because two men of both side are moving with big "Go" and another man is behind the "Go" in this mural. In the center and the rim of front surface of "Go" of mural, an unique pattern is painted. And this pattern is shown first on musical instruments of Koguryo but it is similar to the pattern of sun on the copper drum of southern region of china. And the pattern, similar to this, is detected in the painting relic of JeongJu GonGoMu (鄭州 建鼓舞) about end of Seo-Han of China.

The pattern on the drum - "GO(鼓)" - in mural painting of ancient tomb of Susan-Ri, Koguryo, is related to the copper drum of China and this fact represents that this "Go" belongs to the 'culture of copper drum' of Korea, because this drum is not made of leather but copper.

참고문헌

안안악 제 3호분 발굴보고 1958년
한국음악사설,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2년
한국 고대음악사 연구, 일지사, 1985년
중국고대사회, 동문선, 1993년
中國 古代 銅鼓, 중국 문물출판사, 1988년
廣西 左江流域巖壁畫考察與研究, 광서민족출판사, 1987년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6년,
云南青銅文化論集, 운남성박물관, 1991년
中國音樂考古學, 복건교육출판사, 2003년

논문

大定三年의 兩面銅鼓

隋書

舊唐書

新唐書

太平御覽

金史